

# 홍선생미술의 사회공헌활동

## 노란스티커로 교통사고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때로는 작은 하나가 세상을 바꾸곤 한다. 택시에서 내리려다 보면 문 안쪽에 '앗! 잠깐 내리실 때에는 뒤쪽 오토바이를 조심합니다!' 라는 문구의 노란 스티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스티커 덕분에 택시이용객들이 차문을 열 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는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누가 만들었을까?

### 전국 홍선생미술 가족들이 만든 노란 변화

정답은 정부, 관련 기관 혹은 회사도 아닌 교육벤처기업 '홍선생미술' (대표 여미옥, misul.eduhong.com) 이다. 언뜻 교통사고방지와는 무관할 것 같은 홍선생미술은 올해로 만 10년째 교통사고방지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사실 스티커를 해마다 제작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다. IMF때는 금전적으로, 2003년에는 태풍피해로 인해 거래하는 인쇄소가 물에 잠겨 지금까지 만들었던 필름과 종이가 물에 잠겼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홍선생미술이 만든 노란 스티커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보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미옥 대표는 10년간의 교통사고방지 스티커배부 활동의 공을 홍선생미술의 구성원들에게 돌린다.

홍선생미술은 프랜차이즈 독립채산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 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미술 실기를 지도하는 회사이다. 남다른 단결력을 가진 전국의 홍선생미술 지사장들이 보내준 정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스티커가 10년 동안 제작 가능했다. 홍선생미술의 구성원들의 힘으로 올해까지 스티커 350만장 정도가 배부, 전국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차내에 부착되었다. 또한 스티커제공으로 인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부장관상을 2번이나 수상하기도 했다.

좋은 일을 하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순식간에 모임이 형성되고 진행되는 홍선생미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무료지도는 전국의 28개지사가 1년 동안 114명의 아이들에게 전문미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계속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사도 생겨났다. 또한 미술대회 개최를 통한 참가비 전액을 난치병어린이 치료비로 후원하였고, 북한 어린이돕기와 사랑의 빵 저금통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였던 일들은 지사장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리사회에 사랑을 퍼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새로운 홍선생미술 지사장을 선발할 때는 돈을 벌어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목소리 나는 지사장을 선택한다는 여미옥 사장. 바탕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사회공헌에 다 같이 열심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항상 느낀다고 한다. 나눔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교사들이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나눔을 통해 그들이 자라서 더 큰 나눔을 나누는 토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noblesse oblige

글 홍선생교육

홍선생미술은 국내방문미술교육 1위업체로 전국에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예술감각을 키우는 방문 미술교육을 진행한다.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기업체 대상 미술실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